

<2012년 2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 존재하는 데서 힘 받고 존재해야 된다. 만일 존재하는 데서 힘을 못 받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목회하는 데서 목회의 힘을 못 받으면 목회를 못 한다는 것이다. 너무 귀한 계시다.

* ‘존재하는 데서 힘을 받아야 자기를 존재시킨다.’에 해당되는 67개의 잠언 중에서 오늘은 24번부터 45번까지의 잠언을 전합니다.

1. 얻는 것이 있어야 존재한다.

2. 작게 얻으면 큰 것을 존재시키지 못한다.

3. 약은 것도 지혜다.

* 약다. 약아빠지다. - ‘자기를 이롭게 하는 수단이 좋다.’라는 뜻

4. 참새는 약다. 그래서 참새로서 존재한다.

5. 약아야 한다.

6. 시간을 퐁당퐁당 쓰지 말고 시간에 있어 약아라. 그래야 하루 할 일을 밀리지 않게 제대로 하면서 간다.

7. 약게 하라고 한 말을 깨달아라. 손으로 하고 지나갈 일을 몸으로 하다가는 갈 길을 못 가니, 손으로 할 일을 손으로 하라는 것이다.

8. 눈으로 보고 지나갈 것을 직접 가서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대 보고 하면 약은 것이 못 된다. 약아야 존재한다. 약은 지혜를 가져라.

9. 약았다는 말은 ‘자기가 할 일에 대하여 유능하다. 지혜롭다’라는 말이다.

10. 참새를 보고 약아빠졌다고 한다. 참새 뒷을 놓고 거기에 먹이를 두면, 참새는 먹이를 덥석 물지 않는다. 그 약은 주둥이로 좁쌀 한두 개씩을 살살 먹으니 뒷이 힘을 안 받아 작동할 못 한다. 고로 ‘지혜롭다. 유능하다.’ 하여 약아빠졌다고 하는 것이다.

11. 농부가 마당에다 조(곡식)를 말리는데, 참새가 살짝 와서 한두 개만 먹고 날아간다. 이웃집 닭은 와서 앉아서 계속 조를 쪼아 먹다가 주인이 던진 빗자루를 맞고 쫓겨났다. 참새가 이를 보고 “나같이 약아야 빗자루 안 맞지.” 했다.

12. 시간을 약게 쓸 곳은 약게 써야 크게 쓸 곳에 크게 써서 큰일을 해낼 수 있다.

13. 주님의 일도 약게 할 것은 약게 하면서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14. 주님이 두 사람에게 “이것 좀 하고 나 따라와라.” 하셨다. 한 사람은 온종일 그 일을 다 하고 해 그늘에 주님을 따라가려 했다. 그런데 주님은 일을 다 하고 돌아오고 계셨다. 다른 한 사람은 약게 순간 하고, 바로 주님을 따라갔다가 주님과 같이 돌아왔다.
15. 인사도 말로 하면 되는데 길바닥에서 엎드려 큰절을 하다 보니 인사를 받는 자가 바빠서 어느새 가 버렸다.
16. 하나님도 예수님도 바쁘게 행하시니, 거기에 마음과 행실을 맞춰 살아라.
17. 주님의 모든 계시는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빼서 내보낸다.
18. 자기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약게 하라.
19. 사람들과 시간을 약게 쓰고 가라. 주님이 네 마음 집에서 기다리신다.
20. 돈에 약아야 된다. 벌지도 못하면서 카드 빚까지 내면서 핑핑 쓰느냐.
21. 주님의 돈을 네 돈같이 쓰면 주님은 안 주신다.
22. 신부라 하면서 혼자 제 살림 하면 어느새 주님은 “네가 신부냐, 농부지.” 하신다.